

광주의 골목길 ② 매곡동 하백로 29번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하백로 29번길에는 골목의 추억과 아름다움, 사람의 향기가 남아 있다.

새하얀 연꽃 피었던 못 따라 과거와 현재가 동행하는 길

아파트 사이로 1900년대 김용학 가옥... 흙담길·탱자나무 운치

일곡동과 매곡동으로 이어지는 골목, 하백로 29번길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길이다. 하백(荷白)이라는 명칭 만큼이나 하얀 연꽃의 이미지와 아름다움이 드러내져 있다.

매곡동은 조선 후기 광주목 외지면(蛙只面)에 속했으며, 당시 이곳에 어매동과 하백동, 중외동이 있었다. 1914년, 어매(於梅)와 봉곡(鳳谷, 용봉지구에서 편입) 마을에서 한 자씩 따서 '매곡리'로 붙여진 지명인 매곡동(梅谷洞)은 어매리(於梅里)와 하백동(荷白洞), 중외리(中外里), 한천리(寒泉里)를 아우르는 동 이름이다.

어매리는 어매마을 북쪽을 우동골이라 부르고, 우동골 위의 산을 여물봉이라 부르는데, 우동골의 이미 소가 산 너머 일곡

동에 있는 자기소를 찾아 '어매! 어매!'라고 우는 소리를 본 따 불렀다 한다. 또한 어매마을 뒷동산은 매화가 땅에 떨어지는 형국과 같다하여 '매화낙지등'이라고도 부른다. 하백동은 마을 앞 연못에 흰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연 하(荷), 흰 백(白)을 써서 붙여진 명칭으로 백련리(白蓮里)라고도 불렀다. 하백동인 하백마을은 앞쪽으로 하백초등학교가 있으며 마을의 중심부는 예전에는 논이었으나, 지금은 밭으로 변한 너른 땅이 있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너른 땅 뒤편으로 길 건너에 1900년대에 지어진 김용학 가옥이 있다. 이미 주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하백로에 있는 이 가옥은 문화재다.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 과거와 현

재가 공존하는 마을 풍경을 이루고 있는 하백마을 '김용학 가옥'은 삼립집과 정자가 언덕 위에 조화롭게 배치된 집으로 아름다움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김용학 가옥'은 주거 공간 왼쪽에 연못과 하은정을, 뒤쪽에는 연파정을 배치해 자연과 어울리게 하였다. 이곳의 하은정과 연파정은 1933년에 지은 정자다. 연파정은 원래 김용학의 아버지 김희수가 할아버지를 위하여 지었는데, 김용학이 아버지를 위하여 하은정을 지으면서 불이나 다시 지었다고 한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뜻을 가진 천원방지가 동네 골목길과 면해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천원방지 돌레에 탱자나무를 심어 운치를 살리면서



김용학 가옥(위)과 골목길.

담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 하얀 연꽃이 곱게 피는 아름다운 연못은 대문을 열면 바로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여 집보다 먼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사랑채와 정자, 연못을 안고 있는 집에 비하면 대문은 소박할 정도인데, 대문을 둘러싼 담 역시 우리 고유의 흙담이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배롱나무와 100년이 넘는 벚나무가 이 전통가옥의 역사를 말해 주는데, 낮은 흙담은 주변을 배려하였던 집주인의 인품을 닮은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집 주위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하백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마을은 아름다움을 많이 잃었다. 그럼에도 어찌랴. 세월이 흘러 사람도 마을의 모습도 변해가는 것을.

지금도 가옥 앞 빈터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아련한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천원방지 바로 앞 도로가, 아마 길을 넓혀서 생긴 공지인 듯 보이는 자투리땅에서도 감자 잎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다. 하지 지나 큼직한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 솥에 감자를 찌 나눠먹으리라.

과거와 현대가 함께 자리한 하얀 연꽃길 29번길에서 골목의 추억과 아름다움, 사람의 향기를 다시 생각한다.

(이원화 시민기자·소설가)

광주U대회 준비상황 심층 점검

FISU, 내달 11일까지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의 국제 기술위원회(CTI) 존 위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이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4일 일정으로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CTI 종합점검은 주로 종목별 경기 운영 준비상황과 경기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FISU 사무국과 종목별 기술 감독 등 모두 38명이 참여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29일 스포츠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업을 제외한 20개 종목이 치러질 경기시설과 훈련시설 등 모두 68개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규격, 경기 코트의 배치, 조명, 의무실, 샤워실 등을 집

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단은 또 대회운영 조직, 경기운영, 경기장 개보수, 식음료, 숙박, 수송, 안전 등 대회 전반에 걸친 분야별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있는 점검회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사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FISU 점검단은 28일 "이번 점검은 FISU와 조직위원회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원활한 소통으로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석 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CTI 점검방문을 통해 조직위원과 FISU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역사·문화 탐방... 과학·전시관

2개 테마별 코스 '시티투어' 운영

시, 매주 토·일요일 1회씩

광주지역 역사·문화 공간과 전시관을 둘러보는 '시티투어'가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광주시는 광주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어가기가 있는 '역사문화탐방코스'와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과학·전시관 코스' 등 2개 테마형 코스로 구성된 '시티투어'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코스별로 1일 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탐방코스에서는 국립5·18민중추진회~호수생태원~충장사(평촌도예공방)~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일반 관광객이 선호는 관광명소를 둘러보게 된다.

과학·전시관코스는 김치터온, 국립광주과학관 등 학생과 청소년이 선호는 코스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티투어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탑승해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중·일 3개 국어로 제작한 홍보물과 외국어 안내방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송정역에서 출발해 광주종합터미널, 광주역을 경유하며 요금은 성인기준 2000원, 초등학생 이하 1000원이다. (단 관람료, 음식비 등 실비는 관광객 개인 부담)

시간표 확인과 사전 예약은 (사)광주관광협회(062-233-3399) 또는 인터넷(utour.gwangju.go.kr/광주문화관광포털)에서 하고, 현장에서도 판매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광주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묻혀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경관조례 개정안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광주시는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

해 사업규모와 심의시기, 심의주체 등을 구체화해 경관 심의에 따른 사업자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경관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도로, 하천, 하수시설, 도시공원, 주차장 등의 사회기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면적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분리 규정했다. 특히,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반영키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공공건축물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향후 경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경관위원회를 통해 일정 규

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쳐 광주시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8월 공포할 예정이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 내달부터 도로표지판 오류 시민신고제 도입

광주시는 오는 6월초부터 도로표지판 내용을 수정하는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판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로표지판 시민신고제는 도로표지, 관광안내표지 등 안내 표지판에 잘못 표기된 사례를 빛고을콜센터(120),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모바일 앱(적적해결서비스)을 통해 시

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도로표지판 총 2853개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잘못 표기된 도로표지판 등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숲속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이제골드코트는 모든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내·외장 불연단열 마감재로서 한번 시공으로 단열, 약취제거, 결로방지, 원적외선 방출, 음이온 방출, 항균, 항곰팡이, 아토피 방지, 새집증후군 방지 등의 기능성 친환경 특화 자재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 여러분께 숲 속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약속합니다.

건물 외벽 시공

내부 인테리어 시공

결로방지 시공

측사(온사,계사)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시공

적용장소 : 아파트, 주택등 실내 및 발코니의 단열 및 결로방지 / 지하주차장 벽체 결로방지 / 지하노래방 습기 차단 및 탈취가능 공장 및 축사지붕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 노후된 건물의 내외벽 리모델링 /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딱테, 산낙지**

가맹비가 따르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결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프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협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